

# “용역에서 산재하지 말라고 해서” 다쳐도 산재처리는 생각 못한 15년

- 제조업에서 일한 허정욱 님 인터뷰

권미정 회원,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

## 일자리를 찾아 떠나 온 15년, 그가 몸담은 사각지대의 노동

“중국 가서 사업하려고 했죠.” 몇 년 고생하고 돈 벌어 아내와 아이가 있는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마음먹었던 허정욱(가명, 50대) 씨는 2010년부터 15년째 한국에 산다. 형과 누나가 한국행을 택하자, 중국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그도 한국에 왔다. 처음 지인의 소개로 오리농장에서 한 달간 일한 후, 형이 일하는 공장으로 옮겼다. 자신과 같은 중국 동포이주노동자가 다수였던 곳, 임금은 낮았다.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평택, 충북, 당진 등을 거쳐 지금은 정왕동에 정착했다.

“근로계약서는 3번 썼어요.” 15년 동안 20여 개의 공장을 거친 그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단 3장. 근로계약서를 써야, 다음 순서로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거 해야 회사가 4대 보험 들어주잖아요. 정직원이 돼야 4대보험 되잖아요. 회사

가 일 있으면 부르고, 일 없으면 자르는 데 언제 4대보험 같은 걸 생각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 동포노동자의 다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더 많은 비용을 내는 지역가입자이다. 동포노동자들은 산재보험 등의 4대 보험을 근로계약서를 쓰는 정규직에게만 해당하는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왜곡된 사각지대의 노동 현실을 정부와 기업이 눈감고 있다.

주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한 허정욱 씨는 안전교육도 보호구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무조건 와서 사인해라 하면 사인 하거든요. 모아놓고 이게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교육)하는 거 없어요.”라고 한다. 안전교육은 사인으로 대체됐다. 보호구를 물으니 “장갑하고 귀마개하고 뭐 작업복 같은 거는 지급해 주니까.” 보호구라고 할 수 없는 기본 품목을 유했다. 장갑도 뭔가 특별한 것인가 싶어 되묻자, 목장갑이 아닌 간혹 코팅 장갑을 줄 때가 있었다고.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라 안전관리자가 있었던 경우도 거의 없다.

일하다 보면 위험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동포노동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작업을 하거나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한다. “프레스 할 적에 센서가 작동해서, 손이 들어가면 기계가 서야 되는데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수량 맞춰야 하니 그냥 하라고. 이거 못한다니까 그럼 넌 나가라.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고용허가제 E-9 비자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권리로 요구하는 현실에서 그나마 중국 동포노동자들은 위험하면 사업장을 그만둘 수 있다. 그러나 동포노동자가 사업장 이전의 자유를 통해 더 나은 조건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산재처리는 꿈도 못 꾸는 현실

그는 프레스 공장을 나와 다른 공장에서 일하며, 자동기계의 불량을 처리하다가 손을 다쳤다. “산재는 안 났고. 용역에서 산재하면 불리하다고. 병원 가서 치료하면 치료비 대준다고 해서.”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용역회사는 병원비만 결제했고, 치료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 용역회사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구하는 동포노동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용역회사로 가장 먼저 연락한다. 다시 일을 구해야 하는 그가 용역회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비자도 그렇다. 허정욱 씨는 기존 H2 비자로 중국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일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지만 F4 비자를 요구하는 회사들이 많아져 23년 11월에 F4 비자를 획득했다. 비자 변경을 위해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수원의 학원에 다녔다.

자본은 고용허가제로 발을 묶어둘 이주노동자와 사업장 이동은 자유롭게 하되 권리는 제약시킨 중국 동포 이주노동자를 나눠서 활용하고 있다. 동포노동자들은 체류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사회·정치 모든 분야에서 권리를 제약받으며, 생존하기 위해 위험을 받아들이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생존을 포기해야 하는 불안정노동자·이주노동자로 살아간다. 허정욱 씨는 현재 회사에 일거리가 없어서 실업 상태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은 없다. “용역에다 다시 연락해야죠. 여기는 용역이 많지 않습니까?” 한 해가 지나서도 건강하게 정욱 씨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